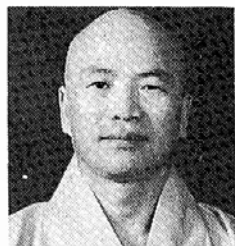


“7백여 동문 만남의 광장 기대”

해인승가대 동문지 '九光' 창간
보광스님

가장 역사 깊은 승가교육기관인 해인승가대의 동문회지(구광九光)이 개교 40주년을 기해 창간됐다. 회지를 창간한 동문회장 보광스님(부산 보타원 회주)은 “졸업동문만도 7백여명을 헤아리며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동문회에 지상으로 상봉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남기는

일도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 회지발간을 발원했다”고 밝혔다. 신국관 2백쪽의 <구광>은 창간범어 창간사 축하 축사를 비롯해 논문 수상 수행·포교단상 문화산책등 동문들의 글이 실렸다. “종단과 사회의 지도층에 자리한 여러 동문들을 생각할때 항상 가슴부듯해 왔습니다.母 강원의 40주년을 맞아 발행된 <구광>은 꼭 기념되는 일로 남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한 일인 만큼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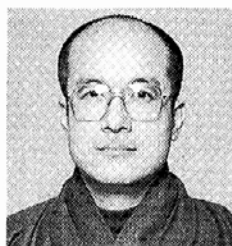
라고 봅니다.” 지난 92년부터 고암장학회 회주로 장학사업과 함께 부산 서구사암연합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해인승가대 후배 학인들의 장학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한다. <관>

“범죄없는 사회가 불국정토죠”

‘재범을 제로화’ 운동
해철스님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 또한 불국정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해철스님의 말이다. “교도소나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을 위해 법문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와 또다

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끔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제1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법회를 실시했다”는 해철스님은 오는 6~7일 양일간 열리는 연수회에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수를 통해 스님은 효율적인 교화방법을 지도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한다. 해철스님은 “법무부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불자가 재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소자들에게 불교의 자비보시정신과 인과법을 알리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고, 사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

연세대서 중국철학의 루우열 교수



“중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한국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효관계 박사논문이 나오는 등 한국 고승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효·의상·서산 사상을 연구하고 싶어”

한국불교학 박사학위 취득한 김훈씨(본지 41호 6면 참조)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중국철학의 권위자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중국철학사> 등 총 12권의 저서와 42편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불교관련 논저로는 <중국불교사상사료집> 전4권과 <불학과 근대중국철학> 등 논문 14편을 발표했다. 93년 10월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주최한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참석, ‘선화의 돈오사상’을 발표하기도 했던 루우열교수는 한국 스님들과의 친분관계도 깊다.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루우열교수는 “기회가 되면 우선 원효 의상스님을 중심으로 원효 저술 서산대사 등의 사상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

창립15돌 미8군 법무회 박동윤 회장



창립 15주년을 맞은 미8군 법무회 박동윤 회장은, 고향인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학성선원에 나가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박회장은 미 8군 법무회의 15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미8군내의 카투사, 연합사, 의장대에 복무중인 40여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미8군 법무회는 지난 79년부터 미8군내 교회 별관에서 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를 가져왔다.

“마땅한 영문교본 없어 포교에 어려움”

“교회는 곳에서 법회를 본다면 일반인들은 이해하는 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장소때문에 불편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활동을 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더 어렵지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박회장은 “법회시 미군들과 미국간인들도 가끔 참여 하는데 그럴때마다 설비나 불교의례들을 설명할 적절한 영문교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교홍포의 난점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박회장은 미8군법무회 15주년을 맞아 앞으로 동문선배들과 지도법사 정진스님의 도움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



북동기 추진위 발족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종교대회 30주년 기념식에서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5개 종교 대표들과 범종단 북한수재민동기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범종중 2대 총무원장 취임

해우스님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대 범종중 총무원장으로 취임한다.

‘남계로...’ 제주서 자선공연

지범스님(불운가수)은 오는 4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부모모은중경 제5집 ‘남계로 가오

‘집지의 날’ 편집대상 받아

송금염씨(월간 불교주간)는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30회 집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편집부문 대상을 받았다.

‘메트로’ 박물관 한국실 개원

홍라희관장(호암미술관)은 지난달 25일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필립 드 몬테벨로관장과 공동으로 한국실 설치관련 협약서에 서명했다.

독동청소년회관 7월 법회

명우스님(독동청소년회관 관장)은 지난달 26일 목동청소년회관 개관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화예술 대학원 학술세미나

신성일씨(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배우)은 오는 28·29

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속초 설악프라자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연다.

인사

조계종은 지난달 24일자로 공식종이인 총무원 사회국정에 원스님, 사업국장에 석천스님, 사서처장에 지현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현종스님은 수석 사서로 전보 발령됐다.

실천승가회 사무실 보광사 이전법회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는 지난달 25일 근부도량인 파주 보광사에서 사무실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청화스님은 인사말에서 “보광사로의 이전은 종단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와 승가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욱 발전하는 승가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타스님과 회신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자비의 집과 관음대비원의 노인들은 흥겨운 한마당으로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 따사로운 햇살과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어우러진 가을 오후, 모처럼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경기도 파주 관음대비원 앞 마당에서 펼쳐졌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경물련 자비의 집**

관음대비원의 임조스님과 원장 유보현성보살도 가을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로 자비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맞았고, 관음대비원과 자비의 집 노인들은 서로 일싸안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며 정겨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방문 자원봉사에는 자비의 집을 이용하는 상계동과 마야동의 노인 80여명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관음대비원의 노인들이 울거울을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연료티켓을 선물했다. 또한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들은 시장에서 직접 옷감을 사다가 만든 바지 37벌과 셔츠 8벌을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점심공양이 끝나자 ‘영기영

다. 흥겨운 한마당이 끝나자 자비의 집 노인들은 모두 관음대비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도 했다. 그러는사이 관음대비원 곳곳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노년을 회향하려는 노인들의 따뜻한 동료애가 꽃피고 있었다. 지금껏 ‘남에게 주기보다는 더 받으려는 삶을 살아왔으나 늙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곳에 찾아왔다’는 자비의 집 이희선 할머니는 “이곳의 노인들도 우리와 함께 더욱 비탄 없는 노년회를 회향할 기원한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파주=이은지 기자

성명서

교육환경 변화에 즈음하여

중앙승가대학은 1979년도에 설립된 후 종령.제42호에 근거하여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총 555명의 졸업생 스님들을 배출하고 현재 300여명의 학인이 수행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전 종단적으로도 중앙승가대학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규대학으로 재도약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예로 전 종정 성철 대종사께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경관을 팔아서라도 정규 승가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현 종정인신 율하 대종사께서는 “중앙승가대학 학사 이전과 정규대학 승격을 위해 마련되는 제반 계획은 실로 우리 불교계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교육불사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종단원로이신 석주 큰스님께서는 설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앙승가대학을 위하여 원력의 정진을 계속하셨다. 현 총무원장인 월주 큰스님께서는 이미 여러 자리를 통하여 “중앙승가대학 이전 불사와 종단의 교육체계 확립이 종단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시고, “이전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때까지 모든 중도들의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9월 15일 중앙승가대학 신축공사 기공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앙승가대학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땅에 진정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할 승가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불교방송에서도 “중앙승가대학은 한국의 나란다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전 국민과 불자들에게 계속 홍보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해 왔다. 그러나 금년 5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교육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전 대학이 무한경쟁의 체제에 돌입하면서 중앙승가대학도 그에 따른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97학년도부터 대학의 정원 자율화가 실시되면 교육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향후 중앙승가대학은 독자적인 학생 선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중앙승가대학은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중앙승가대학이 발전되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독자적 교육기관에 의하여 교육되어야만 종단의 이념교육이 보장될 수 있다. 종단의 승가교육은 일반 대학교육

과는 달리 불교의 정법을 계승하고 수행의 가풍을 진작하며 중생교화의 원만한 인격과 교양이 갖추어지도록 전문교육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종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승가대학은 종단의 독자적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성장해야만 종단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승가교육을 위탁할 경우, 종단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승가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승가교육의 앞날을 보장받기는 매우 힘든 일이며, 실사 승가교육이 계속 존속된다 하더라도 종단에서 책임져야 할 재정적·심정적 부담은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가중되어 인재양성에 지장을 받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승가대학은 종단의 독자적 승가 전문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만약 중앙승가대학이 계속 발전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교육불사의 포기나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공약의 불이행으로 종단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다시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인제교육의 차질로 인하여 종단의 불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포교활동을 비롯한 대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종단운영에 제1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당위성이 있으므로 중앙승가대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무원에서는 승가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력과 지도력을 총동원하여 중앙승가대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앙승가대학과 종단에서 “지원”하는 여타 교육기관을 분리하여 각별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39년 10월 18일
중앙승가대학교수협의회